

한국봉료보건연구회 정기총회 및 제29회 봉료연수회 개최

- 160여명 회원 및 양봉인 참석으로 성황
- 봉료지도사 자격시험 및 각종 강의 이어져

한국봉료보건연구회(이하 연구회)는 지난 11월 29일 ~ 30일 양일간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한국봉료보건연구회 제26회 정기총회 및 제29회 봉료연수회를 개최하였다.

160여명의 회원 및 양봉인들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앞서 봉료지도사 1, 2급 자격시험에 치러졌으며 김영근 연구회 부회장의 강의와 실습을 비롯해 여러 회원들의 강의가 이어졌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배경수 양봉협회장은 축사에서 “국내 봉료 기술은 세계 어느나라에도 뒤지지 않은 뛰어난 기술”이라며 “이제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에서 널리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 회장은 “비록 아직 봉료가 제도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 대체의학으로서 확고한 자리를 굳힐 때 우리 양봉산업의 가치와 위상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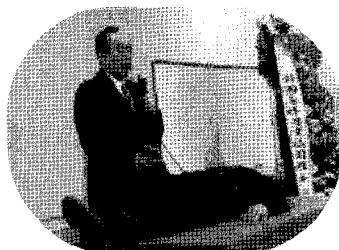
고상훈 연구회 부회장의
개회사 모습



배경수 양봉협회장의
축사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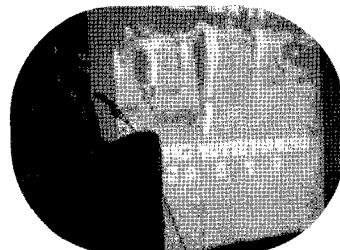
총회에 앞서 봉료지도사(1급 및 2급)
자격시험을 치고 있는 응시자들의 모습



김영근 부회장의 강의와
실기 모습



열심히 강의를 경청하고 있는
회원들의 모습



충북대 조성구 교수의 기축에 대한
봉침요법 강의 모습